

102.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

성별 남 **나이** 44세 **직종** 자동차 제조업 **업무관련성**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전○○은 1987년 9월 (주)OO에 입사하여 엔진가공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06년 1월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전○○은 1987년 9월부터 1997년 5월 OO공장 제조관리부에서 엔진1부 가공, 트랜스미션 기어가공을 주로 하였는데, 용접이나 절단 등의 금속 흠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없었지만 선반가공 작업 중 철분진과 오일미스트가 발생 하였으며, 매연 등의 노출이 있었고, 작업 중 신너로 부품을 하루 1-2회 10분 정도 닦는 작업을 하였다. OO공장에서는 1998년부터는 감독자, keeper, 조장의 직위로 일하였는데, 생산부서의 인원이 결원될 경우 자주 직접 작업할 때가 많았다고 하였다. OO공장에서는 조립부의 완성 직장에서 조립작업을 하였으며, 작업 중 완성된 차량 조립품의 흠을 닦아내고 수정 도장을 하는 작업을 하였다. OO 및 OO공장의 업무는 주야 2교대로 실시되었으며, 잔업이 될 경우 하루 10시간 정도의 업무를 했다. OO공장은 2005년 1월경 디젤엔진가공 용장이 신축되었는데, 당시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보조하였으며, 이 때 바닥의 도색작업 및 용접 작업을 수행 하였다..

3. 의학적소견: 입사 전 특별한 건강이상상이 없었고 가족 중에도 신경계 질환 병력은 없었다. 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주 두 잔 가량을 마시며, 흡연은 1995년부터 2005년경까지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피웠다. 2006년 1월부터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 지는 등의 증상으로 개인병원에 다니다가 호전되지 않아 S대학병원을 방문하여 2006년 4월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받았다.

4. 결론: 근로자 전○○은

- ① 1987년부터 (주)OO에 근무하면서 분진, 금속 및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는데,
-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작업공정에 대한 검토 결과, 중금속 및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은 간헐적이거나 저농도의 노출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③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납의 노출과는 비교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으나, 현재로서는 그 외 화학물질과는 연관 짓기 어렵고, 작업중 납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

전○○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작업 중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